

제12권 14호

2022. 7. 11~2022. 7. 24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문화적 특성으로 금융시장 이해하기
- 이슈분석**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 금융경영브리프**    은행 및 투자 서비스를 견인하는 3가지 기술  
글로벌 은행, 중동지역 IB 진출 경쟁 가열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의 공포'와 'R의 공포'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 환 : 하반기 출발부터 삐긋한 환율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kyong.shin)

#### 논단

교수 전용호

#### 이슈분석

연구위원 오영선(ohys)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장혜원(hwjang)  
연구원 김종현(jh.kim)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위원 정유탁(jungyt)

####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문화적 특성으로 금융시장 이해하기
- 04 **이슈분석**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 08 **금융경영브리프** 은행 및 투자 서비스를 견인하는 3가지 기술  
글로벌 은행, 중동지역 IB 진출 경쟁 가열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의 공포'와 'R의 공포'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 환 : 하반기 출발부터 벅긋한 환율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문화적 특성으로 금융시장 이해하기\*

전 용 호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cheon@inu.ac.kr)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적 특성’이라는 사회학적 관점의 접근방법이 이제까지 잘 설명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규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금융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 전체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재무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문화적 특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그 나라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문화적 특성을 정의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추상적 관념에 가까운 까닭에 문화적 특성을 정의하고 그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위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정의하고 그 국가별 차이를 수치화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인 G. Hofstede가 발표한 문화지수(cultural index)가 있다.<sup>1)</sup> Hofstede는 전세계 주요 76개국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성을 크게 (1) 개인주의, (2) 불확실성 회피, (3) 남성성, 그리고 (4) 권력 수용성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각 항목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특성이 강한 국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으로 개인주의 점수가 91점이며, 개인주의가 가장 약한 나라는 과테말라로 6점이다. 한국의 개인주의 점수는 18점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이 계량화된 국가간 문화적 특성의 차이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 비교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필자가 연구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특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화적 특성을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권력 수용성으로 파악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Hofstede, G., Hofstede, G.J., and Minkov, M,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2010.

있다.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모형에 문화적 특성에 대한 변수나 가정은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적 특성이 시장 참여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그 나라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 ❖ 모멘텀 전략 수익률과 개인주의 성향

문화적 특성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는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투자전략으로 모멘텀 전략이란 것이 있다. ‘모멘텀’이란 관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 번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모멘텀 현상은 일부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과거 수익률이 높은 종목(승자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 수익률이 낮은 종목(패자 주식)을 매도하는 모멘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뒀다.

흥미로운 점은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국가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에서 모멘텀 전략은 월평균 1% 내외(1년이면 약 12%)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 아르헨티나, 중국, 포르투갈, 태국에서는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터키에서는 모멘텀 전략을 실행하면 오히려 (미약하지만)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멘텀 전략의 국가별 성과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이 문제는 모멘텀 전략의 성과 차이가 문화적 특성 중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 있음을 미국의 금융학자인 S.Titman이 발견하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sup>2)</sup> Titman에 따르면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개인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나’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화할 지가 중요하며,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반면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일부로 인식하며,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중시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의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평균

모멘텀 전략의 국가별 성과차이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의문

개인주의 성향이 모멘텀 전략의 성과차이와 관련 있음을 발견

[2] Chui, A.C.W., Titman, S., and John Wei, K.C., “Individualism and momentum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2010.

적인 투자자보다 우월한' 투자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주식을 사고팔 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자기과신(overconfidence)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과신이 강한 투자자들에 의해 모멘텀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 있다. 자기과신이 강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후에 주가가 오르면 이 투자자는 본인의 당초 매수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의 매수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여 매도하지 않고 단지 일시적인 가격조정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자신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과신 성향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종목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멘텀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Titman의 연구는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투자자들의 자기과신 성향이 강하고, 모멘텀 전략의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특성이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기과신이 강한 투자자는 성공을 능력으로 인식하고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

## ∴ 문화적 특성은 재무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의미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은 주식시장 수익률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 기업경영 방식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투자자 권리보호의 수준, 기업의 부채비율 결정, CEO의 의사결정 행태, 금융시스템의 형태 등 매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가별 편차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문화라는 변수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기간에는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큰 국가일수록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 주식시장 수익률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sup>3)</sup>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무관해 보이는 '문화'라는 사회학적 관점이 이제까지 잘 설명되지 않던 여러 재무적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둔 투자전략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시에 참고할 만하다. 문화적 특성이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떠한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문화는 법률체계, 기업경영 방식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

[3] Ashraf, B.N., "Stock market's reaction to Covid-19: Moderating role of national culture", Finance Research Letters, 2021.

##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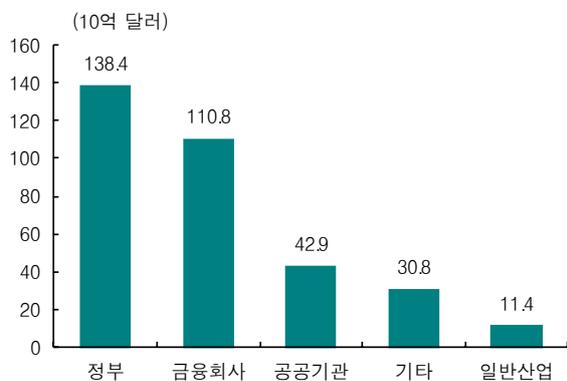
오영선 연구위원(ohys@hanafn.com)

최근 금융회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공존의식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회사는 기존에 대응해 온 사회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국내 및 글로벌 금융회사는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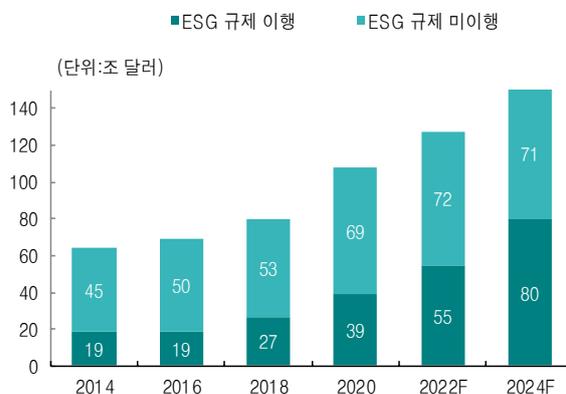
-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변경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고, 1990년대부터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윤리라운드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대두
- 이후, 2020년 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가 주주들에게 기후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ESG’ 경영이 금융권으로 확산
  - 블랙록은 화석연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
- 국내 및 해외의 규제 기관 역시 금융회사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저탄소 금융 활동 선언 및 이행을 촉구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 전 세계 금융회사는 올해 약 1,110억 달러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향후 발행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

####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금액('22.1.1~'22.6.5)



자료 : Bloomberg

#### ■ 글로벌 ESG 규제 이행 자산 규모



자료 : Deloitte Insights

## ■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는 환경과 인간, 개인과 사회의 공존의식 확산에 기인

-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산불, 폭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인류의 미래가 더 이상 안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고조
-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기 발생시 함께 극복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
- 아울러, 금융회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적 책임론도 부상

## ■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이 국가 및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확대

- 불과 20여년전만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활동은 소외계층 지원, 금융 교육 실시, 공공기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스포츠/문화 활동 후원 등에 국한됨
-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특정 수혜자에 대한 기부, 후원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 투자 및 공동 가치 창출로 전환되는 추세
- 특히, 기후 위기 대응, 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보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혁신 기업 성장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 ■ 금융회사는 채권 발행 이외에도 투자 및 자문, 상품 출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 국내외 금융회사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투자 및 금융 자문, 사회 인프라 구축, 혁신 산업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
  - 공공 및 비금융부문과 연계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넓힘
  - 단일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수천억 원,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서 높은 사회적 파급력을 기대
- 그리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거나 ESG 여신상품을 제공하는 등 상품에도 ESG 요소를 결합

## ■ 글로벌 금융회사는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한 직원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

- (HSBC) 지속가능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임원들이 지구를 관찰하는 과학자와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비즈니스 기회 모색
- (BBVA) 그룹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8만 7천명을 대상으로 Oxford, Cambridge 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후 행동 및 포용적 성장 관련 교육을 완료

■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이행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연결’

- 금융회사는 이제 경제주체의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동반 성장 방식을 모색하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단일 기업이 보유한 전문성과 물리적 자원은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3자와의 협업이 필수이며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일도 중요
  - 前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는 국제 사회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
- 특히, 금융회사는 ESG 활동을 통해 소외된 개인을 사회의 중심부로 연결하고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
- 또한, 사회의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해관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요구됨

■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 경영 사례

아젠다	금융회사	ESG 경영 사례
도시문제 해결	CI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도시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 운송/의료시설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거주자와 근무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li> <li>· (파나마시티) 교통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및 재정 지원, 조인 제공</li> <li>· (디트로이트) 도시가 파산한 이후 가로등 수리비가 부족해 조명의 40%가 작동하지 않자 1억8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채권을 인수, 디트로이트의 조명을 재가동함</li> </ul>
	Goldman Sac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최대 주택 채권 발행자인 NY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HDC) 및 미국 최대의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인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HPD)와 협력하여 뉴욕에 주택 공급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에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li> </ul>
재생 에너지	Wells Far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부문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저탄소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지원(Wells Fargo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미국의 모든 유틸리티 규모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발전의 12%를 차지)</li> </ul>
	JP Morgan C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와 지역 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스타트업인 Arcadia에 2억 달러를 투자하여 가정 및 상업용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코 시스템을 지원</li> <li>· 영국 최대 탄소 제로 전기 생산업체인 EDF와 함께 JP Moran의 영국 사무소에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예정(33,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li> </ul>
탄소배출량 감축 및 생태계 보호	U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인식 ETF 상품(Climate Aware Global Developed Equity CTB UCITS ETF)을 출시하여 투자자들이 탈탄소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해당 상품은 회사의 탄소 배출량, 재생에너지 생성 능력, 석탄 채굴 또는 석탄 에너지 생성으로 인한 수익과 같은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Solactive Index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광범위한 ESG 심사를 거쳐 부적격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li> </ul>
	D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야생동물협회 및 NGO단체와 협력하여 태양열 펌프 설치, 묘목 조달, 유기 비료 및 나무의 위치 정보 태그 지정, 생물 다양성 평가 및 수문 지질학 평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숲을 조성</li> </ul>
여성인력 양성	Santa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상품 'Generacion 81'을 개발,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이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고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li> </ul>
	Bank of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의 정부 및 비영리, 미디어, 민간 기업 등에서 선발한 여성 리더들과 아이티, 인도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재능 있는 신흥 여성 지도자를 매칭하여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효과를 기대</li> </ul>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금융회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이 필요

- 향후 금융회사는 기존에 대응해온 사회 문제 이외에도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의 변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이에, 금융회사는 ESG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계획이 필요
  - 시류에 편승하기 보다 자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아젠다로 정하고, 핵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함
-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는 ‘ES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편되는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함
  -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도입이 절실
-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직원은 본인의 업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명감 및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태도 필요
  - ESG 경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며, 기업 전반에 걸쳐 직원들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 잠재성이 있는 위기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발생 가능 위기	예상 현상	금융회사 대응방안
글로벌 경기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자본 및 투자 감소</li> <li>· 재정적 어려움(부채 상환, 사업 실패)</li> <li>· 운영 및 재정적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침체에 강한 섹터에 투자</li> <li>· 새로운 업무를 위한 노동자 재교육 지원</li> <li>· 유동성 및 변동성 압력 관리 강화</li> </ul>
기후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와 생물다양성 손실</li> <li>· 식량과 물 부족</li> <li>· 난민 활동 증가</li> <li>· 운영 및 재정적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자본 개발, 상품 및 전략 투자 및 개발</li> <li>· 경기 부양책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li> <li>· 새로운 업무를 위한 노동자 재교육 지원</li> <li>· 위험 모델 및 포트폴리오 조정</li> </ul>
유기 및 합성 생물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의학 및 가정 쓰레기 증가</li> <li>· 재정적 어려움(부채 상환, 사업 실패)</li> <li>· 운영 및 재정적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부양책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li> <li>· 유동성 및 변동성 압력 관리 강화</li> </ul>
대규모 사이버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물 및 산업 시스템에 대한 위협</li> <li>· 개인 정보 및 보안 위협</li> <li>· 업무 방해</li> <li>· 운영 및 재정적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전반의 강력한 사이버 위험 관리</li> <li>· SI의 윤리적 사용 옹호</li> <li>· 사이버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투자 및 개발</li> </ul>
정치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자본 및 자금조달 감소</li> <li>· 투표권 박탈</li> <li>· 무역 차질로 인한 경기 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위험 및 포트폴리오 모델 조정</li> <li>· 신뢰를 강조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집중</li> </ul>
양자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li> <li>· 개인 정보 및 보안 위협</li> <li>· SI의 윤리적 사용</li> <li>· 운영 및 재정적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효율적인 양자 기술 기금 조성</li> <li>· 산업 전반의 강력한 사이버 위험 관리</li> <li>· SI의 윤리적 사용 옹호</li> </ul>

자료: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 은행 및 투자 서비스를 견인하는 3가지 기술

장혜원 연구원(hwjang@hanafn.com)

Gartner는 2022년 은행 및 투자 서비스를 견인하는 3가지 기술 트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테이션’을 선정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2~3년 간 지속되어 금융 서비스 조직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기, 자금세탁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율 시스템과 개인정보 강화 컴퓨테이션을 통해 고객만족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Gartner는 2022년 은행 및 투자 서비스를 견인하는 3가지 기술 트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테이션’을 선정<sup>[1]</sup>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원본과 유사하면서도 반복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의미
- 자율 시스템(Autonomic System)은 복잡한 환경에서 외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시스템
-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테이션(PEC, Privacy-enhancing Computation)은 데이터를 암호화로 변환한 다음 분산 방식으로 처리·분석하고 하드웨어 단계에서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
  - 또한 데이터를 개별적 혹은 여러 개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AI 모델링, 서로 다른 기종에서의 협업 등이 가능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

### ■ 전세계 은행 및 투자 회사들의 IT 지출은 전년비 6.1% 증가한 6,230억 달러로 예상

- IT 지출 가운데 컨설팅 및 관리서비스 분야가 2,64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1,490억 달러로 가장 빠른 성장률(11.5%) 기록
  - 미국 은행들의 전체 IT 지출 규모는 2021년 794억 9,000만 달러에서 2025년 1,137억 1,000만 달러로 지속 성장할 전망
- BoA, JP모건 등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IT 지출은 영업비용 대비 평균 18.3% 수준인 반면, 국내금융사는 총예산 대비 평균 8.8% 수준에 불과(2020년 기준)

[1] “Gartner Identifies Three Technology Trends Gaining Traction in Banking and Investment Services in 2022”, Gartner, 202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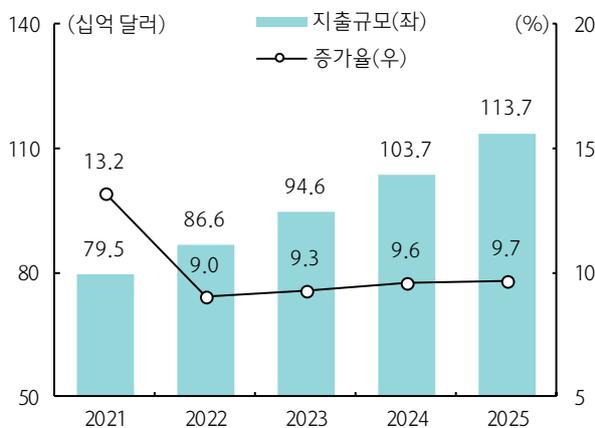
■ 3가지 기술 트렌드는 향후 2~3년간 지속되어 금융회사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할 전망

- (Generative AI) 금융회사는 콘텐츠, 고객경험 등의 데이터를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사기 패턴 및 자금세탁 전략을 탐지하는데 활용
  - EIU의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 고위 임원의 80%가 향후 AI를 통한 가치 창출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응답<sup>2)</sup>
- (Autonomic System) 현재 자산관리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 시스템에서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형태 등 하드웨어 기반의 자율 시스템으로 진화
  - 단순한 로보어드바이저(Roadadvisor) 서비스 수준에서 휴머노이드가 자율적 채무관리, 개인금융 컨설팅, 대출자동화 등 확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발전
- (PEC) 데이터 전송, 분석, 보관 등의 안정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3자의 무단 접근 등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대기업의 60%가 하나 이상의 프라이버시 강화 컴퓨테이션을 도입할 전망

■ 국내 금융사들도 디지털금융 가속화에 따른 경쟁에 대응하여 최신 기술 활용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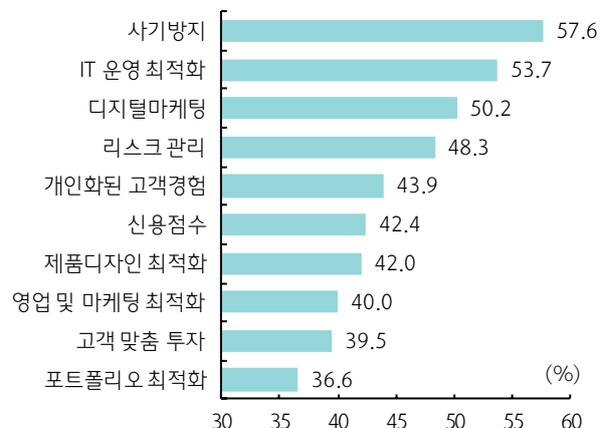
- 국내의 인터넷 전문은행 보급률 및 디지털뱅킹 사용자 비중이 높은 수준인 반면, 글로벌 대형은행 대비 IT 지출은 낮은 수준
- 디지털금융의 경쟁 강도가 높아진 환경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 활용 및 IT 관련 지출을 확대할 필요 

■ 미국 은행들의 전체 IT 지출규모 전망



자료 : Insider Intelligence(2021.03)

■ 은행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AI 애플리케이션



자료 : EIU Survey(2022)

[2] "Banking in a game-changer: AI in financial service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2022

## 글로벌 은행, 중동지역 IB 진출 경쟁 가열

김 중 현 연구원(jh.kim@hanafn.com)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2022년 상반기 글로벌 IPO 규모가 위축된 것과 달리 중동의 IPO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중동 IB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은행들은 중동지역 IB 사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고유가와 GCC 프로젝트 등 중동 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국영기업 IPO 등으로 IB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해외 IB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IPO 시장 위축에도 중동 IPO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

-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2022년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0% 위축
  -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요 IPO가 지연·취소되면서 글로벌 IPO 규모는 '21년 상반기 6,619억 달러에서 '22년 상반기 1,998억 달러로 급감
- 반면, 동기간 UAE의 IPO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배 가량 급증하며 중동지역 IPO 시장을 견인하였고, 글로벌 주식 발행시장에서 중동이 유일하게 성장
  - UAE IPO 추이(십억 달러): 0.4('20.2H) → 1.7('21.1H) → 3.1('21.2H) → 8.6('22.1H)
  - 중동 IPO 추이(십억 달러): 7.1('20.2H) → 8.9('21.1H) → 16.8('21.2H) → 16.5('22.1H)
  - '22년 상반기 지역별 IPO 증가율(YoY)은 북미 (-82%), 유럽 (-75%), 아-태 (-64%), 중남미 (-58%)로 모두 IPO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중동 (+76%)은 성장세를 기록

### ■ 유가 급등 영향으로 중동지역 IB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의 중동 사업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고유가와 국영기업의 상장 등으로 중동 IPO 시장이 성장하면서 Goldman Sachs, Credit Suisse 등 주요 은행들은 중동 IB사업을 확대
  - 두바이 수자원공사 IPO('22.04)에는 Credit Suisse, Goldman Sachs가, UAE의 국영 석유 회사 Borouge PLC의 IPO('22.06)에는 Goldman Sachs, JP Morgan, Citi 등 참여
-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중동지역의 각종 M&A 자문뿐만 아니라, 은행간 인수에도 참여하고 있어 중동지역 M&A 시장 참여 증가
  - 소하르 국제은행은 HSBC오만 인수 의사를 밝혀 중동지역 은행간 M&A 확대 예상

[1] Competition heats up as banks try to cash in on UAE's IPO boom, S&P Global, '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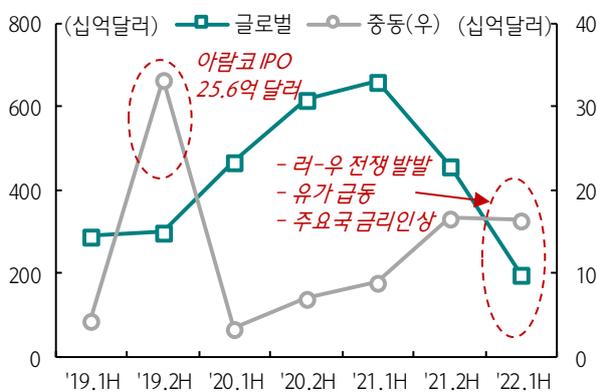
■ 중동 주요국의 경제 전망이 양호하고, 투자 리스크는 낮아 중동 IB시장의 지속적 성장 기대

- UAE 중앙은행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석유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2~'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UAE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 ('22년) 4.2% → 5.4%, ('23년) 3.3% → 4.2%
- 또한 GCC<sup>[2]</sup>의 프로젝트와 비석유 부문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수익 다각화 등은 중동 지역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UAE·사우디는 외채 상환태도가 우수하고, 서방과 우호적 관계로 정치환경이 안정적이므로 투자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
  - UAE·사우디는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수준 고려시 외채 상황 태도 우수
  - '22년 GCC 프로젝트 시장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정착되면서 외국인 유입 인구 증가하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역시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 IB 진출을 고려할 필요

-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다다르자 국내 금융사는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
  - 현지 금융사 지분투자, M&A 등 유망산업 중심의 IB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
- 중동의 IB사업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금융사 역시 중동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
  - 중동 전문 인력 및 현지 데스크를 확보하고, 선두 은행의 중동 딜에 참여하거나 국내 산업의 중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등 시장 이해도와 track record를 제고할 필요
  - 한편, 지난 6월 재개된 韓-GCC FTA 협상 분야에 투자, 상품,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내 금융사의 중동 진출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및 중동지역 IPO 규모 추이



자료 : Bloomberg

■ '22년 글로벌 주요 은행의 중동 IB사업 참여 사례

유형	주요 내용	참여 금융기관
IPO	Nahdi Medical Co. 상장 ('22.03)	HSBC, SNB Capital
IPO	두바이 수자원공사 상장 ('22.04)	HSBC, Goldman Sachs, Credit Suisse, Citi 등
IPO	Borouge PLC 상장 ('22.06)	HSBC, Goldman Sachs, Citi, Credit Suisse, JP Morgan 등
IPO	Alamar Foods 상장 ('22.06)	HSBC
M&A	'타워세미컨덕터'를 '인텔'이 인수 ('22.02)	- 인수대상 자문단 JP Morgan - 인수기업 자문단 Goldman Sachs
M&A	'에티하드 에티살라트'를 '에미리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룹'이 인수 ('22.03)	- 인수대상 자문단 JP Morgan - 인수기업 자문단 HSBC
M&A	'소하르 국제은행'이 'HSBC 오만' 인수 제안 ('22.06)	- 인수대상 HSBC오만 - 인수기업 소하르 국제은행

자료 : Bloomberg, S&P Global, 언론 종합

[2]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 5월 페르시아만 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함

## 금리: 'I의 공포'와 'R의 공포' 사이에서 줄다리기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와 경기침체 우려로 급락했으나,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며 반등했다. 국내 금리는 높은 소비자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외금리 하락과 외인 선물매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최근의 금리 급락은 시장의 초점이 통화긴축에서 경기침체로 이동한 데 있으나, 대내외 중앙은행의 수차례 금리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상승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금리는 7월 빅스텝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대외금리 및 수급여건에 연동된 등락이 예상된다.

### ■ 글로벌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로 급락했으나,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며 반등

- 美 근월PCE 상승세가 다소 완화(5월 YoY 4.7%, 예상 4.8%, 전월 4.9%)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美 금리가 급락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
  - 애틀랜타 연준은 美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1Q -1.6%→2Q -1.9%)
  - 美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 6월 연고점 3.72% → 7.7일 3.37%
- 이후 6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경기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한 금리인상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자 美 금리는 반등
  - 美 국채 2/10년(%): 6.24일 3.06/3.13 → 7.1일 2.83/2.88 → 7.7일 3.01/2.99
- 한편 호주 중앙은행은 2Q CPI를 6%대(1Q 5.1%)로 예상하며 2회 연속 빅스텝 (0.35%→0.85%→1.35%)을 단행하고, 금리상단을 2.5%까지 높일 가능성 시사
  - 6월 ECB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7월 25bp 이상 인상을 지지하며 긴축기조 강화

###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락에 연동되는 가운데 외인 선물매수 확대 등으로 큰 폭 하락

- 6월 CPI 상승률(YoY 6.0%)은 원자재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기대인플레이션(3.9%, 1년)도 전월비 사상 최대폭(+0.6%p) 상승
- 美 금리 급락 영향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회복되자 외국인 현물채권 매수가 급증(원화채 잔고(조원): 6.20일 220 → 7.6일 231)하고 채권선물 매수도 큰 폭 확대
- 국내 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감 심화, 시장 예상수준에 부합한 물가지표, 시장금리의 7월 빅스텝 선반영 인식 등으로 장단기 금리 모두 큰 폭 하락
  - 국고 3/10년(%): 6.24일 3.52/3.64 → 7.1일 3.44/3.49 → 8일 오전 3.31/3.37



## 외환: 하반기 출발부터 삐끗한 환율

정 유 탁 연구위원(jungyt@hanafn.com)

주요국의 통화긴축 공세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화 초강세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마저 넘어서는 등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중 일방적인 환율 급등 이후 조정 여지도 부각되지만, 여전히 진행 형의 대내외 악재들이 환율 불안올 자극하고 있다. 7월 중하순에도 환율 흐름을 좌우할 대형 이벤트나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된다. 일단, 환율 1,300원대의 안착 여부를 주시하며 1,280~1,320원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 ■ [원/달러 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속 한때 1,310원대마저 돌파

- 지난 6월말 1,300원대를 상향돌파한 후 다소 조정 양상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배경으로 달러화가 초강세를 재현하면서 추가 급등
  - 위안화 약세가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환율 안정에 일조
  - 하지만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다 美 장단기 금리 역전 등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된 데다 연준의 매파적 인식이 재확인되면서 환율 재급등
  - 7/6일 원/달러 환율은 1,311원까지 급등했고 역외시장에서는 1,315원까지 급등
- 이후 달러화 강세가 유로화에 집중되면서 亞 통화를 위주로 단기급락 인식이 부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반락, 1,300원을 재하회하는 등 高변동성 지속

### ■ [국제 환율] 글로벌 침체 우려와 연준의 긴축 강화 속 달러화 20년래 최고치 행진

-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재부상하는 가운데에도 연준의 6월 회의록을 통해 공세적인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달러 강세 지속
  - FOMC 6월 회의록은 물가안정에 집중해 고강도 금리인상을 지속할 의향을 강조
- 유로화는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일시(7/11~21) 가동중단기로 하면서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까지 가세하며 20년래 최저치 재정신
- 엔화도 6월말 24년래 최저치 이후 조정 국면을 거치는 모습이나 달러 강세의 영향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 136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
- 위안화는 중국내 감염 재확산에 따른 봉쇄 재개 우려 속에 경기둔화 부담이 크지만, 美 관세인하 기대 속 위안/달러 환율 6.7위안 내외에서 변동성 억제

■ 달러 강세와 맞물린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까?

-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불안 심화, 주요국의 공세적 통화긴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반기 원/달러 환율 폭등
- 또한 외화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주식매도 공세가 이어진 데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무역수지도 2008년 이후 첫 적자를 시현하는 등 압박 심화
  - 상반기 두바이유가 60%(YoY), LNG가격 229%, 석탄가격 223% 상승하면서 관련 수입액만 410억\$ 증가,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21.1H +173억\$→22.1H -103억\$) 견인
- 하반기에도 지정학적 긴장이나 에너지 및 물가 불안, 긴축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화수급 상의 부담도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지속시킬 전망
- 다만,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데다, 외국인 채권보유도 늘고 있고 유가도 반락세를 보이는 등 환율 추가 급등 여력은 제한적
  - 게다가 최근 외국인 주식매도 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율 1,300원대의 안착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

■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물가 및 경기 모멘텀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에 주의할 필요

- 7월말 FOMC(7/26~27)에서 추가 자이언트스텝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 7월 금통위(7/13)의 빅스텝 단행 여부, 또 ECB(7/23)의 긴축개시 향방 등 주목
- 특히 연준 긴축 행보와 관련 美 6월 소비자물가(7/23)가 관건이 될 소지가 크며, 최근 감염이 재확산된 중국의 재봉쇄 가능성 및美中 관세협상 향방도 중요
- 아울러 중동 순방(7/13~16)에서 바이든이 사우디의 원유증산을 이끌어낼지 여부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점령에 나선 러시아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주시
  - 환율 추가 상승시 1,320원이 1차 저항선이며, 반락시 1,280원 하회 여부 주목 

■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변동률



자료 : Infomax(7/8일은 12시 기준)

■ 국내 주요 외화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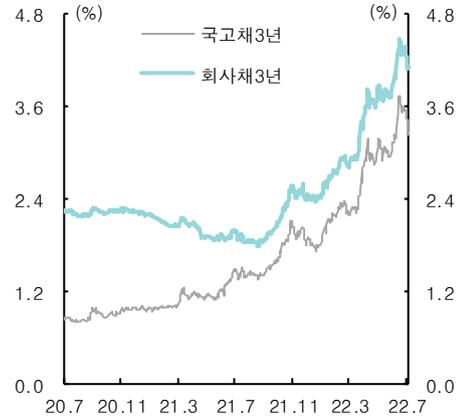
구분	21.1H	22.1H	증감
외국인 주식투자 (억원)	-176,950	-165,053	+11,897
외국인 채권투자 (억원)	+388,624	+152,958	-235,666
무역수지 (백만달러)	+17,290	-10,300	-27,590
경상수지 (백만달러)	+32,925	+19,173	-13,752
대외 주식투자 (백만달러)	-34,774	-31,322	+3,452
대외 채권투자 (백만달러)	-1,374	-1,961	-587

주: +는 유입, -는 유출 기준  
 자료 : 한국은행(경상수지, 대외 주식/채권 투자는 1~5월 기준)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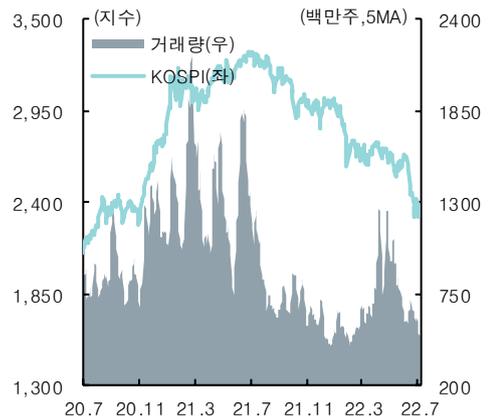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6월말	2.34	2.04	3.45	4.36	3.55	3.65
7월1일	1.72	2.05	3.47	4.26	3.44	3.50
7월4일	1.66	2.05	3.48	4.25	3.43	3.50
7월5일	1.68	2.05	3.49	4.13	3.30	3.37
7월6일	1.74	2.05	3.47	4.09	3.24	3.28
7월7일	1.74	2.05	3.48	4.11	3.26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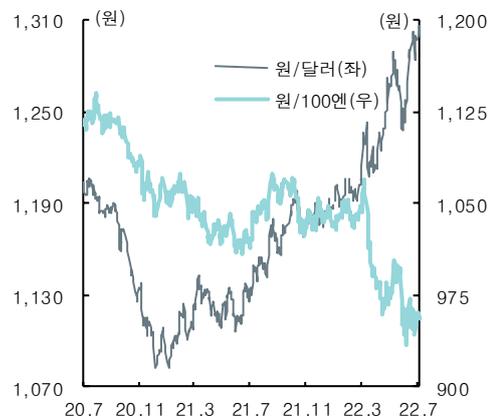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6월말	2,332.6	89,235	515	-2,339
7월1일	2,305.4	86,877	530	-3,400
7월4일	2,300.3	73,394	468	-1,385
7월5일	2,341.8	68,906	324	1,324
7월6일	2,292.0	89,195	411	-477
7월7일	2,334.3	76,526	340	1,448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6월말	1,298.4	956.5	193.8	1,360.8
7월1일	1,297.3	959.3	193.6	1,352.3
7월4일	1,297.1	956.3	193.6	1,351.5
7월5일	1,300.3	956.5	193.5	1,334.7
7월6일	1,306.3	960.8	194.7	1,329.8
7월7일	1,299.8	955.2	193.9	1,3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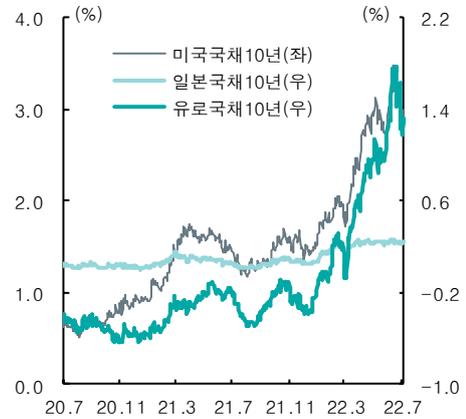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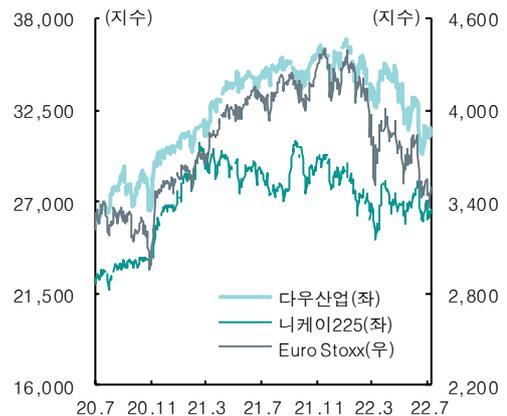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6월말	1.58	2.29	2.95	3.01	0.23	1.34
7월1일	1.58	2.29	2.83	2.88	0.23	1.23
7월4일	1.58	2.32	2.83	2.88	0.23	1.33
7월5일	1.58	2.35	2.82	2.81	0.22	1.18
7월6일	1.58	2.39	3.00	2.93	0.25	1.21
7월7일	1.58	2.43	3.01	2.99	0.25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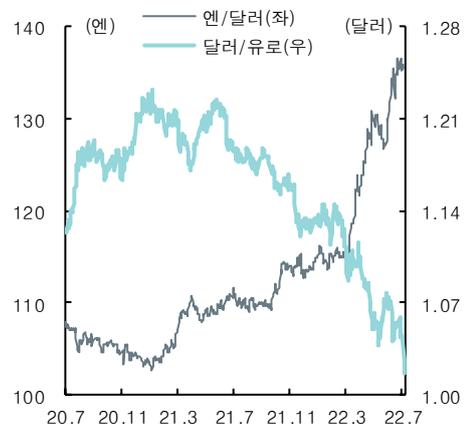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6월말	30,775.4	26,393.0	3,398.6	3,454.9
7월1일	31,097.3	25,935.6	3,387.6	3,448.3
7월4일	-	26,153.8	3,405.4	3,452.4
7월5일	30,967.8	26,423.5	3,404.0	3,359.8
7월6일	31,037.7	26,107.7	3,355.4	3,421.8
7월7일	31,384.6	26,490.5	3,364.4	3,488.5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6월말	135.71	1.048	113.4	1,807.3
7월1일	135.18	1.042	106.3	1,801.5
7월4일	135.59	1.042	108.4	1,801.5
7월5일	135.84	1.026	111.1	1,763.9
7월6일	135.93	1.018	101.7	1,736.5
7월7일	136.00	1.016	98.2	1,739.7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7월 9일 인쇄

2022년 7월 11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